

광주 밖에서 들리는 강기정 시장에 대한 이야기

기고

백호림

마음 메디테이션트(주) 대표이사



타향에서 30년 넘게 살다보니 고향소식이 들려오면 귀가 솔깃하다. 광주가 그동안 '민주화의 성지'로 전세계에 이름을 떨치는데 반해 '먹고살기 좋은 도시'란 이미지 구축에는 실패해 왔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그러나 요즘 몇 해 사이 들려오는 '광주의 변화'를 접하면서부터 사뭇 생각이 달라졌다. 과거 광주행정은 이른바 행정의 달인들이 시장이 되어 광역자치체를 이끌어 왔지만 그다지 시민의 욕구와 만족감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시중여론이었다. 달인의 명성과는 다르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비아냥도 있어 왔다. 그만큼 광주시장 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라도 하듯 민선8기를 맡은 강기정 시장은 '속도감 있는 정책집행'과 '뚝심있는 시장행보'로 광주의 대변화를 경작(耕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 그렇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골탈태 수준이다. 특히 보수를 대표하는 흥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얻어진 이른바 '흥준표 사용법'에 능통하며 보수정부와 밀당을 통해 대통령의 광주민생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을 보면 강 시장의 내공이 그저 평범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광주의

날'을 선포하여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광주의 대표정책을 국회에 전달하고, 여야를 넘나드는 광주전담 국회의원을 위촉하는가 하면 광주형일자리 상징인 GGM전기차(캐스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른 광역자치체장들이 엄청 부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기막힌 발상이다. 경험과 실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 아니던가.

이를 뒷받침하듯 강 시장은 시정기조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삼고 광주의 변화를 작정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새로운 경제도시, 꿀잼도시, 돌봄도시가 그 대표적인 트렌드다. 그 가운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명성(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을 얻어 복지정책에 있어 전국적인 표준모델로 자리잡아 세계표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듯 광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체감은 시장 취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광주의 해묵은 숙제들(복합쇼핑몰, 전남일신방직 부지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지산IC 진출로, 어등산개발)을 성과있게 풀어낼 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영산강도시광주(Y프로젝트), 책임은 도시 광주(상무소각장의 대표도서관 변신), 걷기좋은 대자보 도시 등 시정집행에 속도감과 돌파력을 갖추면서 시민들로부터 기회도시의 기대감과 가능성을 함께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모멘텀이 주는 강렬함은 어쩌면 국회의원 3선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국정을 세심하게 살피은 강기정 시장의

역량이 고스란히 광주에 집적되면서 '광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까. 그 동안 강 시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강성 정치인으로 덧 씌워졌지만 민선8기 광주를 발빠르고 효능감있게 이끌면서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과거 이미지를 훌훌 잘 털어내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광주 밖에서 보는 강기정 시장에 대한 이런 평판이 정작 광주 안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작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보수정부 아래서 어디까지 추락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만큼 잘 단련된 정치지도자가 우리 지역에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은 김대중 이후 호남의 정치적 자산이 빈곤한 이 시절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여서 '광주 밖'은 오히려 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광주의 딸'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광주는 노벨상의 도시로 격상되었다. 더불어 광주는 팔찌수준이었던 광주FC의 놀라운 정상급 성장, KIA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V12달성으로 챔피언의 도시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광주(光州)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수 중심으로 떠올라 이른바 들쭉들쭉하고 있다. 이런 대기운에 힘입어 강기정 시장이 걸어왔던 과거의 여정과 현재의 행보가 '광주의 기분좋은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 되고 있듯이 앞으로도 뚝심있게 펼쳐지기를 출항인으로서 기대한다.

社說

광주 공공기관 기강해이 부끄럽지 않나

허위·부실자료 신뢰 무너뜨려

광주시 산하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부실 자료를 제출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촬영된 사진을 부분 편집해 제출한 것은 민선 8기 광주시의 느슨한 행정을 보여주는 '민낯'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광주는 지역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안타깝다.

당장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4일에는 광주관광공사가 다른 목적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부분 편집해 제출하고 운영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광주도시공사에서는 법률고문 대리인 명단과 각종 위원 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야말로 북마전이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자치단체가 출자한 산하기관의 신뢰는 청렴도를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8기 광주시가 외쳤던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이 됐고 시민과의 신뢰감은 무너졌다. '능력 위주의 인사'라며 크고 작은 공공기관에 촉진을 기용해 온 강기정 광주시장의 '정실 인사'가 만든 예견된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믿고 싶지 않는 말이지만 온갖 구설에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촉진을 거듭 기용해 온 강 시장의 과거를 감안하면 믿지 않을 수도 없다.

광주시는 산하기관의 기강 해이를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단순 오기'라는 해명은 의회와는 물론이고 시민까지 무시한 부끄러운 행태다. 신뢰를 잃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보여준 성의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제 식구끼리 감싸는 온정주의였다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 허위작성됐다'는 시 의회의 지적이 강 시장의 뜻이 아니라 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태양광 메카' 전남 폐패널 처리 고심할때

"수명 도래...환경 오염 우려 커"

'태양광발전 메카'로 각광받는 전남이 태양광발전 폐패널 처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차영수 의원은 지난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폐패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은 부족하다"며 "당장이라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 매뉴얼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이 전국 태양광발전 용량의 23%를 생산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흔들림 없는 유지 발전이 필요하고 설비 수명 20년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만 4596톤, 2030년 2만 935톤, 2033년 4만 1743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전남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비책 마련 없이는 전남은 향후 방치된 폐패널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도 이런 상황을 인지한 듯 녹색 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순환 분야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처리 자원순환 기술을 연구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 성과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탄소중립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았다. 전남도 또한 태양과 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장밋빛 정책'에 불과했다. 권력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힘을 잃은 것도 있지만 역효과도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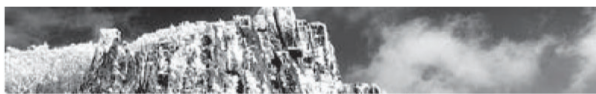
전남도내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광풍이 불면서 전력연계 과부하로 인해 신규 허가 중단, 태양광 전력 단가 하락 뿐 아니라 산림 파괴 등의 부작용까지 속출했다. 여기에 폐패널 처리가 골칫거리로 전락한다면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하루빨리 태양광 폐패널 처리를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37포인트(0.52%) 내린 2563.51에, 코스닥 지수는 8.50포인트(1.13%) 내린 743.31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보다 15.45원 오른 1394.05원을 기록했다. AP/뉴시스

서석대



'명태군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실과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도 '명태군 늪'에 빠진 것 같다. 야권과 언론 등에서 '명태군 게이트'(Gate)라고 명명하며, 연일 새로운 사실들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서 '게이트'는 '문'을 뜻하는 영어 단어다. 정치 분야에서 권력형 비리나 은폐, 조작 등 대형 부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게이트라고 부른다. 게이트 앞에 파문을 일으킨 주요 인물, 일어난 장소, 핵심 단어 등을 붙이는 식이다.

게이트의 유래는 '워터게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1972년 6월, 워싱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던 건물 이름이 워터게이트 빌딩이다. 빌딩 6층에 비밀 공작원들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워터게이트의 결과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났다. 이후 권력과 관련한 비리 의혹, 부패 사건에 '워터'를 빼고, 그 사건과 관련한 핵심 단어를 붙여 무슨 무슨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

이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단어로 스캔들(scandal)이 있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을 말한다. 연예인들의 연예설이나,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행보를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다. 어원은 거꾸로 매

달아 올리는 함정을 뜻하는 그리스어 스캔달론(scandalon)에서 유래했다.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전쟁의 신 아레스와 바람을 피울 때 남편 헤파이스토스가 몰래 쳐든 그물 함정에 걸려 다른 신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명씨를 둘러싸고 게이트와 스캔들이란 단어가 따라붙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김건희 리스크"는 한국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는 그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연

루된 여러 스캔들"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다. 스캔들과 달리 게이트는 정치적으로 불법 행위가 입증될 때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캔들은 '추문', 게이트는 '불법 비리'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은 스캔들을 넘어 게이트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명태군 게이트'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은 더 깊어졌다. 국민들은 혼돈과 절망에 빠졌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명씨 늪'에 빠진 국민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